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아만 버리고 하심 할 때  
희망찬 미래 열려”  
8면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허풍이나 떨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결점을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7월 26일) · 주간

제 1006호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 비구니 스님 호계위원 진입 다시 ‘원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 개정 ‘부결’

절차상 하자로 원로회의에서 인준되지 못했던 종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진입이 무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는 8월 11일 개최한 제199차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다뤘다. 이날 종헌 개정안은 종헌에 명시한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결의가 이뤄졌다.

종정 자력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각급 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등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은 의원 62명 중 찬성 52표, 반대 10표로 의결정족수인 54명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총무원장 호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제 조사, 승납 35년, 연령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제 조사·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하는 종헌 개정안은 62명 중 찬성 53표, 반대 9표로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또한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진입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도 62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41표, 반대 21표로 성안되지 못했다.

원로회의에서 주장한 별빈 단서 조항 삭제 등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돼 차기 총회로 이월됐다. 총무원장 선거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종헌 개정안은 총무원에서 철저히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지난 총회에서 종헌 개정을 근거로 개정 작업을 했던 중앙종회법, 교구중회법 등을 번안했다.

사실상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입법 회기였으나 모든 종헌 개정안이 부결되며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특히 비구니 참종권 확대에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진입의 무산은 많

은 실망감을 안겼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 실천승가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구니 호계위원 임명은 승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비구니스님들의 당연한 권리로 남녀 평등이라는 사회적 조류에 부합하는 종단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도들의 열망이었다”며 “종단 내부의 뿌리 깊은 여성차별의식에 의해 좌절되는 퇴행적인 모습을 15대 중앙종회는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실천승가회는 이어 “중앙종회가 자신들의 특권에 안주해 종단 내 불평등적인 요소에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찬성 41표·반대 21표 받아

의결 정족수 결국 못 넘어

실천승가회 등 비판 성명도

불교여성개발원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불교계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6월 분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반대 21표라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비구승가의 본심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종회 NGO모니터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NGO모니터단은 논평에서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오랜 시간 설득과 협상을 통해 상정됐지만 또다시 부결돼 중앙종회가 이 시대 불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제시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스님이 밝힌 빛, 오늘의 우리 이끈다

자유와 평화, 자비사상으로 우리민족의 앞길을 밝힌 만해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는 만해축전이 8월 11~13일 인제대마포캠퍼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열반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은 ‘청년 만해’를 주제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고찰하고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11일 열린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을 비롯해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온 이세중 변호사, 생용차 해고노동자 돕기 캠페인 ‘손잡고’, 아프리카니스탄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비롯해 휴머니즘 영화를 만들어 온 모호센 마흐말바프 등 사회활동가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관련 기사 3면> 인제=노덕현 기자

## 대각회 “법인관리법 찬·반 보류”

11일 분원장 회의서... 오는 26일 이사회서 결정

(재)선학원과 더불어 조계종의 최대 사찰 보유 법인인 (재)대각회가 분원장 회의를 열고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에 대한 찬·반을 발표하려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발표를 보류했다.

대각회의 최종 입장은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이사회 이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대각회(이사장 도업)는 8월 11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분원장 중간 스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해 보광, 흥교, 혜충 스님 등 이사진 7명과 분원장 18명이 참석했다. 애초 공개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사 보광 스님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장시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이사진과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 차가 확인됐던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26일 회의에서 전체 분원장의 의견과 괴리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 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조계종·선학원 간 반박 오가  
이와 함께 조계종과 선학원은 서로 주장과 반박을 이어갔다. 선학원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 관리법의 문제 조항들을 예로 들며 종단이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재단 사업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계종은 1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선학원의 주장에 대해 “선학원은 종단처럼 사찰을 등록 받아서는 안되며 현재 소속된 분원에 대한 지원관리와 선봉진자, 수좌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법인관리법은 법인을 사유화하려 하거나 탈종을 기도하려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계종 승적을 버리고 탈종하는 분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종도로서 살고자하는 분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학원 해당 분원에 대해 직접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제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재

조계종 교육원, 13일 직지사서... 115명 행사 입고

제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재를 알리는 고불식이 8월13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서 봉행됐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청소년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소년출가자 7명을 비롯해 남행자 73명, 여행자 42명 등 115명의 행자가 입교했다.

고불식에서 교육원 교육부장 정도스님은 “사회와 역사에 부응할 수 있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

며 아름다운 승가의 일원으로 성장해 줄 것”을 행자들에게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은 “이번 수계교육을 계기로 수행자의 각오를 다시고 새로운 준비를 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은 오는 27일 회향하며, 이에 앞서 26일 5급 승가고시사 치러진다. 고시 합격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집한다

####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중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특권 구역 확장 및 광고 수수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량,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관리부 서훈진 부장
- 전 화: 02)2004-8204 팩 스: 02)737-0698
- 이메일: cgseo@hyunbul.com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 위드부다

위드부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부다를 검색하세요.